

# 얼굴인식·지문인증...첨단 기술로 운전자와 교감

제네시스는 30일 'GV60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세계 최초 공개) 행사를 온라인으로 열고 브랜드 최초의 전용 전기차인 'GV60(지브이식스티)'를 공개했다.

앞서 출시된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와는 무엇이 다를까. 제네시스는 '운전자와 교감하는 전기차'를 콘셉트로 내세우고, 새로운 첨단 기능들을 대거 선보이며 차별화했다.

장재훈 제네시스 브랜드 사장은 "파워풀한 주행성능과 함께 운전자와 교감하는 다양한 핵심기능을 통해 럭셔리 전기차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전용 전기차 'GV60'은 쿠페형 CUV 스타일의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경쟁 모델과 차별화했다. 크리스탈 스피어, 지문인증 시스템 등 운전자와 교감하는 다양한 혁신 기능을 갖춘 실내, 차량이 운전자 얼굴을 인식해 키 없이도 차량 도어를 잠금 및 해제할 수 있는 페이스 커넥트(위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 제네시스

기준과 다른 역동적·우아한 디자인 키 없이 차량 출입·시동 주행 가능 1회 충전 주행 451km...제로백 4초 스탠다드 후륜 모델 5990만원부터

### ●디자인이 곧 브랜드이자 브랜드 파워

GV60은 제네시스의 디자인 정체성인 '역동적인 우아함(Athletic Elegance)'에서 특히 '역동성'에 방점을 찍었다. 쿠페형 CUV 스타일의 날렵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통해 고성능 전기차의 이미지를 한층 강조했다.

전면부에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상징인 두 줄 디자인의 쿼드램프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가다듬어 적용했다. 그릴은 헤드램프 아래쪽으로 배치했는데, 이는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차량 하부에 위치한 고전압 배터리의 냉각효율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다.

전체적으로 매끄러운 근육질의 입체감을 강조해 기존 제네시스 차량들과는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데에 성공했다. 윈드 쉴드 글라스에서 시작해 윈드 우 라인(DLO, Day Light Opening) 상단을 따라 흐르는 번개 모양의 크롬 장

식도 눈에 띈다. '볼트 DLO'라고 이름 붙였는데 GV60만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다.

실내 역시 디자인과 기능성의 조화로 가득하다. 가장 눈길을 가는 것은 크리스탈 스피어(Crystal Sphere)라 불리는 전자 변속기다. 시동이 꺼져 있을 때는 무드등 역할을 하고, 시동을 걸면 회전하면서 변속 조작계가 나타난다. 전기차는 엔진음이 전혀 없어 시동이 걸렸는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크리스탈 스피어의 회전을 통해 운전자는 시동이 걸려 있음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다.

후진 기어를 넣으면 붉은 색으로 변하며 램프 진동을 전해줘 드라이브(D) 모드와 후진(R) 모드를 혼동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한 것도 인상적인 변화다.

### ●운전자와 차량이 교감하는 혁신 기술들

GV60을 구매했다면 운전자를 위해 차

키를 소지할 필요가 없다.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페이스 커넥트와 지문 인증 시스템을 통해 키 없이도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페이스 커넥트 기능에 사용되는 카메라는 근적외선 방식을 적용해 야간에도 사용 가능하며, 딥러닝 기반의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안경이나 모자를 써도 운전자 얼굴을 인식한다.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도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전기차 통합 제어 장치 ▲서스펜션 ▲브레이크 ▲스티어링 휠 ▲에어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핵심 기능이 자동 업데이트된다. 또한 초광대역 무선 통신을 적용해 스마트폰만 지니고 있으면 별도의 조작없이 차량 문을 열수 있는 '디지털 키 2' 기능도 최초로 적용했다.

전기차의 핵심 요소인 충전 부문에서

는 배터리 컨디셔닝 기능을 최초로 적용했다.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연동해 고객이 급속 충전소를 검색할 경우 충전소 도착 전 필요에 따라 배터리를 온도를 최적화해 저온 환경에서 충전 시간을 단축하는 기능이다.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더 빨라졌다. 350kW 초급속 충전 시 18분 이내에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완속 충전 용량을 기존 7.2kW에서 11kW로 증대해 충전 시간을 단축시켰다.

### ●기대를 넘어서는 역동성과 편의성

GV60은 스탠다드 후륜, 스탠다드 사륜, 퍼포먼스 모델(사륜구동 적용) 등 총 3가지 모델로 운영된다. 3가지 모델 모두 77.4kWh 배터리가 장착된다.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스탠다드 후륜 모델 기준 451km다.

고성능 전기차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한 부스트 모드도 적용돼 있다. 스티어링 휠에 위치한 부스트 모드 버튼을 눌러 활성화 하면 10초간 최대 합산 출력이 360kW까지 증대되고, 4초 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할 수 있다.

구동력 배분과 제동제어를 최적화해 작은 조향각과 적은 가속 페달량으로도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드리프트가 가능하다.

GV60에는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연결되고 클러스터,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간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최초로 적용했다.

GV60의 판매 가격은 5990만 원~6975만 원(친환경차 세제혜택 및 개별 소비세 3.5% 반영 기준)이다. 엔트리 모델인 스탠다드 후륜 모델은 5990만 원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중근당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 우크라이나 임상 3상 계획 승인받아

브라질·인도·태국 등 8개국서도 진행 예정



국산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중근당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나파벨탄'(성분명 나파모스타트·사진)의 임상 3상 계획을 우크라이나 보건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우크라이나 임상은 4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나파벨탄의 임상 3상 계획에 따른 것으로 국내를 비롯해 8개국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임상 3상 계획의 첫 해의 승인이다. 현재 중근당은 나파벨탄에 대해 브라질, 인도, 태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페루에서도 3상을 진행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중근당은 이번 글로벌 3상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의 고위험군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이중 눈가림, 다기관·다국가 무작위 배정 방식을 통해 나파벨탄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국내 임상은 7월부터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첫 환자를 등록한 데 이어 현재 총 14개 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근당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진행한 나파벨탄의 임상 2상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환자 104명 중 조기경고점수 7점 이상 환자 36명에게서 중상 악화를 방지하고 치료기간과 치료율을 개선하는 고무적인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이후 식약처 개발집중지원협회의 지원으로 임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글로벌 3상에 돌입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을 하게 됐다.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는 나파벨탄의 주성분 나파모스타트는 변이 여부에 관계없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활동을 억제해 세포의 감염을 막는 작용기전이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델타, 람다와 같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성분이다.

중근당 관계자는 "모두가 바라는 위드 코로나 단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백신뿐 아니라 여러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브라질, 인도, 페루 등 여러 국가로 임상을 확대해서 중증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한화큐셀, 텍사스 주에 168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준공

직접 운영 예정... "엄격한 품질관리" 미태양광 시장서 확고한 위상 구축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이하 한화큐셀)이 미국 텍사스 주 패인 카운티에 168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사진)를 최근 준공했다고 30일 밝혔다.

168MW는 국내 기준 약 23만 8000명이 연간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전력량을 생

산할 수 있는 규모다. 한화큐셀은 2018년 텍사스 내 최대인 235M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한 데 이어 미국에서 100MW 규모 이상의 발전소 준공 실적을 새로 추가하게 됐다. 한화큐셀은 이 발전소를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

한화큐셀은 미국 태양광 발전소 EPC(설계·조달·시공) 분야와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에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 2019년 미국 태양광 분야 유력 매체인



솔라파워월드가 선정한 '태양광 EPC 어워드'에서 10위권에 진입했다. 2020년 미국 태양광 발전소 EPC 실적(누적 523MW)에서도 상위 10위권에 올랐다. 또한 한화큐셀은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관인 우드맥킨지가 2020년에 진행한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점유율 조사에서 주거용은 3년 연속 1위, 상업용은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며 대형·상업용·주거용 등 전 태양광 분야에서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구영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미국 태양광 시장은 저탄소, 친환경 경제의 세계적 기조 아래 급성장하고 있다"며 "엄격한 품질관리와 브랜드력을 기반으로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의 선도적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mythuki@donga.com

##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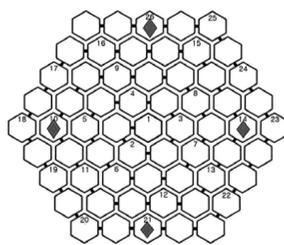
#### ■ 스토쿠문제

		5			7		
		7	4		9	5	
9	3			7			8 2
		2		4			7
		4	7		6	2	
	6			2			4
3	4			8			5 9
		1	9		3	8	
		8			3		

#### ■ 스토쿠정답

7	9	6	1	2	8	6	9
6	2	8	9	6	1	7	9
6	9	1	7	8	9	2	8
8	7	6	9	2	1	9	7
8	1	2	9	6	7	4	9
9	7	9	8	7	6	2	1
2	8	7	1	2	9	9	6
1	8	9	6	9	7	4	8
9	6	2	7	8	9	1	7

#### ■ 낱말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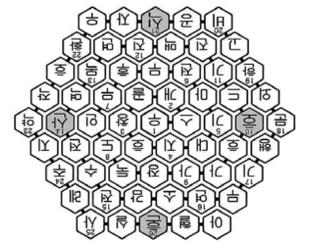
#### ■ 열쇠

- 남을 웃기려고 하는 짓이나 말.
- 수채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
- 문을 바르는 종이.
- 돌아다니며 수양하는 중의 의복 따위.
- 말을 타고 하는 싸움을 본뜬 놀이.
-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음.

- 사람이 살지 않는 섬.
- 남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드는 장가.
- 한 집 한 집.
- 짙막한 밑짚 토막으로 만든 피리.
- 기운과 정력이 다함.
- 본래의 모습.
- 서늘 남산의 옛 이름.
- 산에서도 싸우고 물에서도 싸웠다는 뜻.
- 거울에 비춰 보는 듯 앞의 일이 환하게 밝음.
- 병충해 방제 등으로 소독약을 살포하는 기계.
- 여행 중의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적은 글.
- 그 일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
- '오외오'
- 어떤 과정에서 중요하거나 어려울 때.
- 공식이 아니고 사사로움.
- 글자를 아는 것이 도리어 근심하게 된다는 말.
- '오자오환'
- 기뻐서 소리치며 날뛸.
- '오호오'
- 여러 가지 약을 넣고 담근 술.

####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칸을 이 어놓으면 결혼기념식(35주년) 명칭이 됩니다.



플레이 스토어 - 경품광고쿠키, 날마다운세, 매직스도쿠